춘천도시재생

uris.chuncheon.go.kr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2호

발행호 2호 **발행일** 2021년 1월 1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범용, 김재영, 이채은, 김태홍
디자인 이경은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 033-245-5266)
사진제공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 033-256-2045)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2호
2021. 1.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1 January **NO. 2**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2호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 T 033-245-5266 W uris.chuncheon.go.kr/webzine

Contents

4 Photo Essay
우리들의 겨울엽서

6 Special
2020년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기록「수고했어 2020」

16 Place
당신만 모르는 야경 맛집「봉의산 순의비」

17 Place
나누고 즐길 수 있게 되어 기뻐요「근화소양 주민 쉼터 」

18 Focus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이어지다「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20 People
타지역 청년과 마을 주민이 함께합니다「청년, 약사리 뛰어들다」

21 People
변화의 흐름 속 요선 사람들「요선동, 70년의 변화」

22 Focus
커뮤니티형 돌봄 시범사업「케어카페」

23 Focus
주민과 주민 사이를 잇다「교동 보물섬」

24 Place
도시재생 청년인턴이 간다!「60년의 요선시장, 60년의 요선제면」

26 Place
춘천 문화 1번지 이야기「피카디리의 역사」

27 People
소양로 183 프로젝트「소근소근 마을 주민참여 활동」



발행호 2호
발행일 2021년 1월 1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범용, 김재영, 이채은, 김태홍

디자인 이경은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 033-245-5266)

사진제공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 033-256-2045)

2021 January **NO. 2**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붓을 하나씩 손에 들고 옹기종기 모여
각자의 소원을 담는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의 마음처럼
화르륵- 불을 지폈다

더 높이 높이 올라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웃음과 기대만큼
행복을 가져다줘

글/사진 이채은 코디네이터





같이 근무했던 청년인턴 윤정이, 선중이의 선물이다. 사업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곤 며칠 걸려 이야기를 영상과 책으로 만들었다. 새해가 되어 당사자 한 분께 영상과 책을 선물해 드렸다.
새마을 부녀회장, 반장, 통장, 경로당 대표의 여러 호칭이 있으신 분. 전쟁, 수혜, 새마을운동, 집 앞의 큰 나무와 평상.
슬픈 기억과 즐거운 기억들. 그러곤 한번 크게 웃으신다. 좋은 자리 마련해 준 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글/사진 이범용 코디네이터

매년 이맘때면 요선동에
도청,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연말이라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지.
그땐 요선동 상점가 외에도
거리 안팎으로 사람이 꽉 찼었어.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새 이렇게 빈 상가가 늘어나고
요선동도 침체 됐지.
더구나 코로난가 뭔가로
그나마도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
매년 연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밖에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지나다녔다고.
이젠 그마저도 옛말이야.
빨리 오랜 친구들하고
맘 편하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요선동 거주 70대 어르신, 요선동 한 카페에서



글/사진 김태홍 코디네이터

2020년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돌아보기

수고했어, 2020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020년의 사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명절 연휴가 길면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덕에 인천 공항이 북새통이라는 뉴스가 매년 명절마다 흘러나왔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해외는커녕 고향에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연휴 내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안전안내 문자'로 확진자 알림이 전해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체온을 재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는 것과 친구를 만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등원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난처한 일들을 계속 겪어야 했고, 아이들은 새 학년, 새 학기의 설렘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단 1년만의 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정들이 계속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일이 많았죠. 비대면 강의, 비대면 회의, 인원수의 조정 등 여러 대안들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속 고군분투하며 이어나간 2020년 춘천시 도시재생 사업과 사업담당 코디네이터의 토막 인터뷰입니다. 모든 사업 내용을 다루고 싶었지만 양이 워낙 방대한 탓에 센터별로 서너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글 이경은 코디네이터
인터뷰 김보희, 도윤정, 이산하, 박창범, 이범용, 서진렬, 이지나, 박동진, 김고은, 이규순, 이신일, 김민경, 황석호, 김태홍 코디네이터
사진 춘천시 제공(춘천 관광 사진 공모전)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약사리 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 탐방

인터뷰 서진렬 코디네이터

Q. 정선 해봄마을과 고한 마을호텔 18번가로 사례 탐방을 다녀오셨는데요, 사례 탐방지를 선정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마을숙박, 마을체험, 마을투어 등을 묶어 마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수사례지인 정선 해봄마을과 고한 마을호텔 18번가를 사례탐방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셨군요. 실제로 사례지역을 탐방하셨을 때에는 어떠셨나요?

사북에서는 약사리문화마을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마을 거점공간 운영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거점공안 운영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과 무엇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리문화마을에도 약초, 소금, 꽃차 등 사업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활동 정도로 멈춰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경험들을 토대로 작은 사업들을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한에서는 마을 주민 스스로 예산 지원 없이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정원 박람회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고 그러한 노력과 연계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곳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도 충분히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중간지원조직, 예술가, 행정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두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마을호텔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수익금을 오롯이 마을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마을호텔 확장 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까지도 고민하면서 도시재생을 출발한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Q. 정선 해봄마을과 고한 마을호텔 18번가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선지역을 돌면서 느낀점은 결국 도시재생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환대할 줄 아는 공동체성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건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축적되어 갈 때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에 사람의 이야기가 축적되는 약사리 문화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인터뷰 이지나 코디네이터

Q. 약사명동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약사명동은 벌써 5차의 집수리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115가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15가구로 시작해서 현재는 30가구 정도로 접수량이 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에 벅찰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영 코디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주민들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신청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대하는 내년 즈음에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대부분 고령이신 주민들께 사업을 알려드리고 보조금 절차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한 차수에 2회 시행되는 심사마다 심사서류를 제작하는 일도 한몫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춘천시에서 처음 시행하게 된 터라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요. 초기 기반을 다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사무장님, 진렬 코디님, 매 심사마다 협조해 주시는 공공건축가 최성경, 차선주 소장님, 시공전문가 차재민, 진호인 소장님께도 꼭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수상소감이 되었네요. 하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인터뷰 김보희 코디네이터

사업명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기간
2020년 10월 ~ 12월

협력·참여 기관
강원도시농업협동조합, 모라비안,
모노스페이스, 춘천인형극제

Q.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50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마을 특성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80% 이상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 했는데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유대감 형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직원역량강화교육

인터뷰 김보희 코디네이터

소양교육명
직원역량강화교육

교육내용
1차 / 강원도 도시재생사업 사례, 도시재생의 자생력 및 청년 활동
2차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시스템 실습 교육
3차 / 도시재생사업 갈등관리 및 펴실리테이션

강사 또는 기관
1차 / 강원도청 이영기 사무관, 박재완 대표
2차 / e나라도움 교육사업단
3차 / 한림성심대 후진학선도형 사업단

Q. 1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을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사례 설명을 들음으로 춘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청년 유입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무작정 청년을 유입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자생할 수 있는 영향을 키워주는 것이 코디네이터들의 역할로 느껴졌습니다.

Q. 2차 직원역량강화교육으로 e나라도움 교육을 기획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기에 현장 코디네이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민공모사업 담당 코디네이터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시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수업에 참여했던 코디네이터분들께 한말씀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육에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육에 참석해주신 코디네이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니즈를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발전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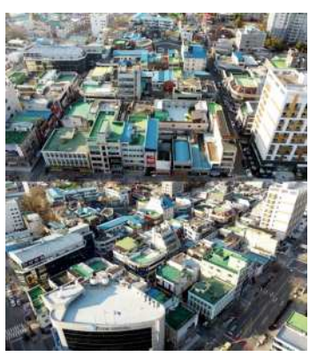
드론 지원 촬영

인터뷰 이산하 코디네이터

Q.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소감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운동 현장지원센터의 이신일 코디님의 부탁으로 요선동 골목 상권을 홍보하기 위한 항공 촬영을 맡게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드론으로 요선동을 구석 구석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다녔던 길이라도 드론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낯설고 새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선동을 거닐다 보면 낡은 노포들과 한적한 거리가 눈에 띄었지만, 하늘에서 본 요선동은 옥상에 널어둔 빨래꾸러미, 상점에서 쓰이는 각종 자재처럼, 때가 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의 활동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제가 한 것은 단순한 영상 촬영이었지만 이번 촬영이 조운동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 채널

웹사이트 구축 & 웹매거진 창간

인터뷰 이경은, 도윤정 코디네이터

Q. 홈페이지와 웹매거진을 기획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는 춘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홈페이지)과 기록과 소통으로서의 역할(웹매거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 센터에만 디자이너 출신이 셋이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Q. 2020년 10월 웹매거진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요, 창간호의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웹매거진에는 주민 인터뷰, 사업 심층 취재, 공간, 축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전에 창간호에서만큼은 주민분들께 그 이야기들을 건네는 센터 코디네이터들을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Who we are'라는 주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사진이 찍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들이라서 이러한 작업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셨을텐데, 모든 분들이 다 끝까지 참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Q.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홍보채널을 계속 구축하고 다듬어 나가게 될 텐데요, 주민분들, 현장의 코디네이터분들과 계속해서 즐겁게 작업해 나가고 싶습니다.

근화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주민맞춤형 창업교육 '바리스타/차/제과'



- **사업명**
  주민맞춤형 창업(바리스타/차/제과) 교육 운영 용역
- **사업기간**
  2020년 2월 18일 ~ 6월 15일
- **협력·참여 기관**
  (주)코빈즈

"

커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중장년층의 창업, 근화소양 사업지역 내 생기는 소통 공간의 운영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해 바리스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주민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총 20명의 바리스타가 배출되었고 곧 완공될 주민쉼터에서 한껏 끌어올린 역량으로 마을을 스스로 바꾸실 거라 믿습니다.

인터뷰 박창범 코디네이터

근화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주민맞춤형 창업교육 '베이커리'



- **사업명**
  주민맞춤형 창업(베이커리) 교육 운영 용역
- **사업기간**
  2020년 10월 16일 ~
- **협력·참여 기관**
  (주)인디커피

"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이지만 주민분들의 배움을 막지는 못합니다. 베이컨 롤, 에그 토스트, 베이지 홀릭 등 유명 카페에서 만들고 판매되는 상품을 주민께서 직접 배우시고 만드십니다. 곧 조성될 근화소양 카페에서 만나 보자고요.

인터뷰 박창범 코디네이터

근화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강연회



- **사업명**
  도시재생 강연회
- **사업기간**
  2020년 7월 29일
- **협력·참여 기관**
  권순석 대표(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와 가치와 춘천의 노포들, 도시재생 구역에서의 청년 일자리의 대한 고민을 하시는 주민분들을 보고 상생을 다시 한번 알고 갑니다. 일자리, 환경은 장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그것보다 마을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속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강연의 마침표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터뷰 이범용 코디네이터

근화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마을백인보



- **사업명**
  마을백인보 제작 및 홍보
- **사업기간**
  2020년 7월 13일 ~
- **협력·참여 기관**
  (주)네이처앤피플

"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마을 주민 이야기를 담아 봅니다. 인생사를 말씀해주시면서 우시는 분도, 요즘이 행복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근화 소양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박창범 코디네이터

교동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마을 주차환경 개선 사업



- **사업명**
  마을 주차환경 개선 사업
- **사업기간**
  2020년 3월 ~ 6월
- **협력·참여 기관**
  덕산개발 주식회사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3곳과 새로운 1곳을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동·소양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주차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담당자로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규순 코디네이터

교동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교동소양 도시재생 BI 공모전



- **사업명**
  교동 도시재생 BI 공모전
- **사업기간**
  2020년 5월 10일 ~ 7월 22일
- **협력·참여 기관**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

교동 도시재생 BI 공모전은 지역 대학생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인 툴을 사용하여 작업해야 하는데, 전공생 외에 일반학과 대학생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춘천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대학생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박동진 코디네이터

교동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교동 보물섬’ 마을활성화 보조금 사업



- **사업명**
  마을활성화 보조금 사업
- **사업기간**
  2020년 9월 ~ 12월
- **협력·참여 기관**
  춘천시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

마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 ‘교동 보물섬’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를 이루기 위해 기반은 더욱 단단하게, 주민의 의견에는 더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뷰 김고은 코디네이터

교동소양 일대 도시재생사업

제7기 도시재생대학



- **사업명**
  제7기 도시재생대학
- **사업기간**
  2020년 11월 ~ 12월
- **협력·참여 기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7기 도시재생대학은 ‘시민분들이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춘천을 이끌어갈 마을 리더로 양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을 신청해 주셨고 춘천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부분과 아쉬 운 점을 토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모습은 저에게 도 격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료식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박동진 코디네이터

조운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우리들의 조운동네



- **사업명**
  우리들의 조운동네
- **사업기간**
  2020년 10월 31일 (토)
- **장소**
  춘천시청 야외광장
- **협력·참여 기관**
  스테이지식스, 디자인페스티벌, 올어바웃디자인 등

“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라이브 쇼핑을 기획했습니다. 온 맘 다해 준비하는 조운동 주민(상인)분들과 지역 활동가분들의 진정성 있는 조력으로 긍정적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민경 코디네이터

조운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조운동 주민(상인)협의체 발대식 및 창립총회



- **사업명**
  조운동 주민(상인)협의체 발대식 및 창립총회
- **사업기간**
  2020년 11월 7일 (토)
- **장소**
  춘천시청
- **협력·참여 기관**
  스텐딩플러스

“

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하며 지역 상인분들의 참여와 지역 상권 부흥을 위한 열정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의체 정식 발족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조운동 권역 상권 활성화에 도시재생 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인터뷰 황석호 코디네이터
김태홍 코디네이터

2020년 춘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근화소양 일대 주민공모사업

도자기 만들기(동네꾸미기)
마을 주민간의 화합 도모를 위한 공예 강습(접시세트, 캔들, 커피용품)

우리동네 박물관 조성
우리동네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숲을 닮은 골목 쉼터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 수업,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한 벽화 조성

지호공예와 전통 민화체험 문화교실
스카이워크 주변, 번개시장 관광용 수공예품 제조

현대판 소양강처녀 특색있는 한복만들기
우리 전통의상을 통한 소양강 처녀 의상 제작하기

생활 속 불화, 민화를 만나다
나무액자와 앞치마에 그림 그리기

번개시장 스마트 박물관 조성
번개시장 상인회원들의 인생사를 담은 주민 인터뷰 영상 제작 등

가구에 민화를 그리다
민화를 바탕으로 문갑 및 문짝에 민화 그리기

소양강 무지개마을 가꾸기
마을의 색상 정비를 통한 무지개마을 이미지 구현 등

수변길 보도경관 개선사업
공동체 강의 및 활동과 주택 2개소 칼라색상 도색 및 홍보

소양정길 무지개길 도색작업
공동체 강의 및 활동과 주택 2개소 칼라색상 도색 및 홍보

전통 배자와 토시 만들기
전통의상과 규방 소품 강의를 통한 배자, 토시 작품 제작

생활 민화 체험 문화 교실
민화를 이용하여 손수건과 모시 문발 꾸미기

가구에 민화를 그리다(찻상)
민화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찻상 꾸미기를 통한 지역 아이템 발굴


도자기 만들기(동네꾸미기)


우리동네 박물관 조성


생활 속 불화, 민화를 만나다


번개시장 스마트 박물관 조성


소양정길 무지개길 도색작업


전통배자와 토시 만들기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꽃차이야기


커뮤니티 아트 '약사의 땅'


몸빼바지와 추억의 재봉페달 이야기


셀프 집수리 교실



요선화음


인생은 60부터! 스마트하게 살자


숲을 닮은 골목 쉼터


현대판 소양강처녀 특색있는 한복만들기


가구에 민화를 그리다


소양강 무지개마을 가꾸기


수리수리 예뻐져라 변신 프로젝트


도자기로 만나는 이야기


뻥튀기기계로 커피로스팅


유기농식품을 활용한 천연 발효액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요번꿈사



요선진짜마켓


새명동 클린하우스

약사명동 일대 주민공모사업

수리수리 예뻐져라 변신 프로젝트
네일 및 헤어스타일링 강의, 미용직업체험을 통한 직업탐색

산야초의 효능과 주민건강 찾기
약초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 및 산약초 및 사업화 기초교육

도자기로 만나는 이야기
도자기 체험 및 미니식물 정원 체험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꽃차이야기
차 문화의 이해 및 활동, 체험을 통한 힐링,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

커뮤니티 아트 '약사의 땅'
틈새 가드닝, 텃밭 가드닝, 서양화 수업 등 주민참여형 전시

뻥튀기 기계로 커피로스팅
뻥튀기 기계를 이용한 커피로스팅, 커피 이론 및 실습 교육

유기농 식품을 활용한 천연 발효액 만들기
유기농 과실을 활용한 발효교육 및 주민들 건강먹거리 전수 등

몸빼 바지와 추억의 재봉페달 이야기
재봉기 이론 및 재단, 제도, 재봉실습 및 제작품 기부

셀프 집수리 교실
빈집 공간 활용하여 셀프 집수리 능력 배양 및 주민역량강화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색 이해 및 컬러 푸드를 통한 건강 증진

육림고개 골목여행 안내지도 제작 및 안내소 & 도슨트 투어 운영
육림고개 도보여행지도 제작 및 배포, 온라인 도슨트 투어 운영

조운동 일대 주민공모사업

요번꿈사
요선 골목문화 조성, 요선동 골목상권 홍보영상 촬영 등

요선화음
골목 버스킹 문화 환경 조성

인생은 60부터! 스마트하게 살자!
지하상가 방문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

요선진짜마켓
예술공연&플리마켓의 운영과 요선상권지도 제작

새명동 클린하우스
새명동 클린하우스 조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당신만 모르는 야경 맛집

PLACE · 공간

봉의산 순의비

저녁 데이트 코스로, 가벼운 산책 겸 야경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춘천에서도 야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봉산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식당이 줄지어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야경을 보며 차 한잔과 함께 수다를 떨거나, 사진으로 그날의 추억을 남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자유로움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가지 않으며 자신을 타인과 격리하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거의 1년 가까이 마스크와 하나가 된 삶을 살다 보니 모두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기분 전환이 될 '맛집'을 추천하고자 한다.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야경 맛집을.

글 이채은 코디네이터
사진 춘천시 제공

교동·소양동에 가면 마치 봉황이 내려와 나래를 펴고 위의를 갖춘 모습 같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봉의산이 있다. 봉의산으로 가는 길목은 여러 곳이 있지만, 유봉여고와 유봉여중 후문에서 시작하는 길로 가다 보면 봉의산 순의비를 지나게 된다. 그 봉의산 순의비를 등 뒤로하고, 서서 앞을 바라보면 빛이 수놓인 춘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꾸며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병풍으로 삼아 바라보는 눈앞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답다.

봉의산 순의비는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꼭 한번 가보길 추천한다. 참고로 봉의산 순의비까지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세종호텔 가기 전, 우측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산책하며 봉의산 순의비까지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것은 이전보다 쉽지 않아졌지만,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된 만큼 당신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꼭 찾았으면 한다. 당신이 좋아했던, 혹은 당신이 소소하게 즐겼던 취미들을 한 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PLACE · 공간

근화소양 사랑방

근화소양 주민쉼터

글/사진 이범용 코디네이터

지난 주민맞춤형 창업 교육을 통해 어엿한 바리스타가 되었어요.
나와 주변 이웃이 배운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고 즐길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박계화 위원님(주민협 의체위원, 소양 5통장)



(1) 주민맞춤형 창업교육(바리스타,차,제과) (2) 주민맞춤형 창업교육(베이커리)

2020년 12월 18일 현재 근화초 인근 마을 주민분들을 위한 주민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 근화소양 주민쉼터 조성 및 운영'이란 공고명으로 조성 중인 본 건은 지상 1, 2층 건물의 주민맞춤형 쉼터로 1층은 중·장년층을 위한 휴게공간과 카페 조성, 2층은 어린이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말부터 조성계획, 감정평가, 토지매입,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계, 건축시공까지 참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주민맞춤형 창업(바리스타, 차, 제과)을 참여해 주셨던 주민분들과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용역 중지 중인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 주민맞춤형 창업(베이커리) 교육 운영 용역' 두 활동으로 배출된, 근화 소양동의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조사업 진행자이신 박계화 위원님(주민협 의체위원, 소양 5통장)께서는 '지난 주민맞춤형 창업 교육을 통해 어엿한 바리스타가 되셨다'고 하시면서 '나와 주변 이웃이 배운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고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십니다. 단순한 수익 구조만을 위한 카페를 벗어나 소통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랑방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2층은 근화초등학교 어머니회와 연대하여 어린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만들어 책도 읽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하교 후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언제나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박위원님과 어머니회에서는 어린이와 마을 주민이 함께 모이는 영화제도 계획 중이니 지나가실 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코로나 확산 추세로 다소 움츠려 드는 20년도의 마지막 달이지만 주민과 주민의 사이에 소통공간에서는 따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1년도의 한 해가 기대됩니다.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50happy50village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이어지다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글/사진 김보희 코디네이터

춘천시 우두동 6통 50호 마을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조성된 춘천 최초의 구호주택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신혼부부와 유아, 청소년, 청년들도 고르게 분포했던 활기찬 마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노후화되었고 춘천시 곳곳에는 신축 아파트와 택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인구는 줄어들고 농촌 못지않은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통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몇몇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되다

우두동 6통은 2017년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유형:우리 동네 살리기)을 신청했지만 아쉽게 연속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두 번의 선정 실패로 주민들은 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을 만하지만, 마을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졌다. 주민들의 의지를 본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원도심팀과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 공모 전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4월 소규모 재생사업에 공모했다. 그 결과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 마을'이 5월 21일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다.









'50호 마을'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시작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50호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사업 공모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한 결과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마을 아카이빙 프로그램, 마을재생대학, 마을 가드닝 프로그램, 마을 인형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50호 마을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 14시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대다수는 65세 이상의 주민분들이었다. 고령의 나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줘서 고맙다는 말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웃음이 더 많아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잠시 연기되기도 했고, 12월 1달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실내에서 진행이 불가해 마을 앞 사거리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겨울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얼어있을 만한데 처음 신청했던 참가자들 모두가 프로그램 끝나는 날까지 함께했다. 처음 13명의 주민들로 시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좋은 입소문을 타고 20명으로 늘어났다.







12월 18일로 50호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수업이 마무리된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했던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모든 분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낸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슬로건처럼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50호 마을은 주민들의 마음이 이어진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한다.

타지역 청년과
마을 주민이
함 께 하 는

청년, 약사리, 뛰어들다

글 김재영 코디네이터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마을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청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과 주민들과 새로운 청년층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약사리로 뛰어들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약사리 문화마을은 여느 도시재생지역이 그렇듯 지역 내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고 청년층이 없어 미래주민에 대한 고민이 깊은 지역이다. 그래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청년, 약사리로 뛰어들다”를 통해 타지역 청년들이 약사리 문화마을에 방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기회를 발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총 2박 3일로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1일 차 약사노리, 2일 차 약사어우리, 3일 차 약사마무리로 마을을 탐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1일차	2일차	3일차
약사노리	**약사어우리**	**약사마무리**
도시재생강의 약사마을학개론 (마을도보투어, 우드카빙 클래스) 마음치유 워크숍(1)	빈집투어 마을자원조사 Design Thinking 워크숍 도시농업의 이해 소셜다이닝 : 지역청년과의 만남 인디밴드 공연	마음치유 워크숍(2)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1일 차, 약사노리는 약사명동 주민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청년과 함께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육림고개 상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며 지역 내 창업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다.

2일 차, 약사어우리는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을 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혁신창업가 육성, 기존지역 주민, 청년과 외지 지역 청년이 만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역 이슈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그 외 바쁜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찾는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정착 및 기회 발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다.

마지막으로 3일 차, 약사마무리는 프로그램 진행 동안 발견하고 논의한 결과물을 공유, 경청하며 최종 발표를 통해 마을을 위한 아이디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12월에 예정됐던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과 참가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참가자 재모집은 1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변화의 흐름 속 요선사람들

요선동, 70년의 변화

글/사진 김태홍 코디네이터

1896년 원주에 있던 강원감영이 현재 도청 자리로 이전하며 강원도청으로 이어져, 요선동은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강원도청이 임시로 원주 감영으로 이전했고 휴전 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도청을 이전하여 1957년 청사를 신축하였다. 그 후로 요선동은 현재까지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직원, 각종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1960 – 80년대는 요선동의 전성기로 요선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유흥주점, 표구사 및 문구사,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당시 요선동은 명동을 포함한 춘천 중심지로 도청뿐만 아니라 시청, 은행 등 관공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종의 상권이 발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원도심 상권의 쇠퇴와 더불어 요선동 상권도 침체가 시작되었다. 춘천시 외곽으로 신도심이 조성되며 중심 상권의 역할도 차츰 외곽으로 유출되었고 이에 요선동을 비롯한 원도심 상권이 쇠락하기 시작했다. 40년 넘게 번영을 이루던 요선동은 현재,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상점가를 찾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침체하였다.

그리고 2020년, 조운동 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며 요선동 상인들은 요선동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 기존의 번영회원과 요선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젊은 상인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투자했고 협의체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더하여 강원도, 춘천시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 외에도 상인회 자체적으로 상권 홍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요선동 상인회는 한 해를 정리하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중이다. 요선동 상인들의 노력이 2024년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요선동을 어떻게 변화할지, 이전과 같이 요선동이 춘천 상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그리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약사리문화마을 × 춘천사회혁신센터

커뮤니티형 돌봄시범사업 ‘케어카페’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사회혁신센터와 협력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커뮤니티형 돌봄시범사업 ‘케어카페’를 운영했다.

‘케어카페’는 유휴간호사와 돌봄활동가가 상주하며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골밀도, 혈압 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개인별 질환, 간호상담 서비스와 같은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케어카페 타이틀에 맞게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디저트류와 레시피를 공유하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영양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하바리움 만들기 등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공예 프로그램도 준비돼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다.









코로나19로 적극적인 홍보는 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만족하신 어르신들이 입소문을 통해 알음알음 찾아와 하루 평균 8-10명이 케어카페에 방문한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찾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재생의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케어카페는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가 협업으로 추진한 약사동 터무니창작소와 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 는 거두리워커스협동조합에서 진행된다.

글/사진 김재영 코디네이터

주민과 주민 사이를 잇다

교동 보물섬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지역의 주민소통공간

글/사진 이채은 코디네이터

지난 2020년 하반기,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주민들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과 주민, 주민과 단체를 연결하여 가교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인 ‘교동 보물섬’이 문을 열었다.

‘교동 보물섬’이라는 이름은 이곳을 운영하는 마더센터에서 교동·소양동 지역을 보며 봉의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교동 보물섬’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동·소양동 지역은 교류공간과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주민분들도 서로 간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동 보물섬이 문을 열고 난 이후 주민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교동 보물섬은 다소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텃밭(틀밭) 조성 사업부터 소외된 주민을 위한 반찬나눔 사업, 친환경 EM 세제 및 비누 만들기 사업, 그림책 큐레이션, 헌책방 운영 등이 모두 교동 보물섬에서 진행되었다.

2020년 12월부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 ‘교동 보물섬’은 종료가 되었다. 하지만 헌책방에서 좋은 책을 천원에 가져가신다며 기뻐하셨다는 이야기, 직접 천연생활제를 만들어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이야기 등 훈훈한 소식들이 사업지역 내 울려 퍼져나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이 간다!

60년의 요선시장 60년의 요선제면

글/사진 신요한 청년인턴

6.25전쟁이 끝난 뒤 1960년대 요선동에는 교육청, 강원도청, 경찰청 등의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요선동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이러한 요선동에서 퇴근길 동그랑땡 안주와 술 한잔으로 하루의 회포를 풀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팔며 상생하던 곳이 요선 시장이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세월동안 상권이 명동으로 옮겨지면서 현재는 몇몇 소수 거주민과 상인들만 남아있다.



요선시장의 입구는 북적대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리 터널처럼 어두웠고 골목 사이로 점포들이 연결되어있었다. 과거, 사람들이 붐비는 요선시장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며 시장 골목을 걷다가 오래된 간판에 '어름'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어름'은 과거 19세기에 얼음과 혼용하여 사용되다 현재는 없어진 사어로 요선시장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요선시장에는 70년 전통을 가진 유명한 제면소인 '요선제면'이 있다. 제면소의 미닫이문에 붙은 신문(2011년 발행)에 "55년 전통의 제면소, 우리 집 국수 맛 들이면 마트 국수 못 먹지요"라는 기사 제목이 제면소의 국수 맛을 궁금하게 하는 문구였다. 가게 안은 70년 전통의 걸맞은 연식의 전통 제면기와 완성된 국수가 진열되어 있는 유리 진열장이 보였다. 진열장의 국수는 비닐에 담겨 마트에서 판매되는 국수와는 달리 포대 종이에 노끈을 묶는 과거 방식의 포장이었다. 요선시장의 과거와 제면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어머니와 함께 요선제면을 운영 중인 따님과 인터뷰를 나누게 되었다.

> "
> 과거에는 잘 나갔죠.
> 그런데 요선 터널(1971-1994)이
> 사라지면서 몇몇 사람들이 떠났고,
> 한 건설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 부도가 났어요.
> 그 바람에 마을이
> 빈집 상태로 계속 남게 되었고
> 그때 요선시장이
>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
> - 요선시장 주민 인터뷰 中 -
> "

Q.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요선제면은 70년 정도 되었고 어머니와 둘이서 운영 중입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면업을 시작하셨고 6.25 전쟁 직후 미국에서 삼백 산업(밀가루, 면, 설탕) 무상 원조 를 받아 본격적으로 제면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요선제면'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요선제면의 국수는 옛날 방식으로 만듭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수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반죽부터 국수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기계로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원래 면의 쫄깃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글루텐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공장에서는 빨리 찍어내야 하므로 쫄깃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선제면은 글루텐이 형성되는 숙성의 시간을 거쳐 국수를 만들기에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한번 드셔본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요선제면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어려우시거나 힘드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요즘 추세가 1인 가족의 형태가 많아져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보다 외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고 각종 만남이 잦아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운영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Q. 요선시장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요선시장에서 먹고 자라며 1층에는 제면소 2층은 살림집, 3층은 건조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아마 요선시장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나와 비슷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과거 대공장이 있기 전 잘나가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결혼식이 있다면 예식장에서는 예식만을 치르고 뒤풀이를 동네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많이 먹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새벽 6시부터 반죽하시고 밤 10시에는 포장하며 새벽에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르신들의 말씀도 기억이 나요. 70~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요선시장의 대폿집에 방문하여 민가를 부르기도 했고, 주민이 부식을 해결하러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그 당시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옛날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 오십니다.

Q. 마지막으로 2021년에 바라시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7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국수로 국수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머님의 뒤를 이어 100년 전통을 목표로 국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와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씀씀이도 증가해 사업도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요선시장으로 사람들이 다시 유입되길 바랍니다.

요선시장과 같은 오래된 역사를 보유한 건물과 점포를 방문해 보며 이러한 지역 자원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된다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주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을 요선시장을 기대해본다.







PLACE · 공간

춘천 문화 1번지 이야기
피카디리의 역사

글/사진 김태홍 코디네이터

'문화도시 춘천'. 2020년 춘천시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내건 슬로건이다. 춘천의 문화도시화의 씨앗은 60여 년 전,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 3년 뒤 조그만 극장에서 시작되었다. 강원도 한 도시의 이 극장은 '소양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한국전쟁으로 춘천이 폐허가 된 직후 설립된 이 극장은 당시 춘천의 최초이자 최신식 극장이었으며 약 700석 규모로 개장했다. 소양극장은 춘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을 제공하며 춘천의 문화 1번가로 자리매김했다.

1960-70년대 소양극장외에 육림극장 등 여러 극장이 생겨나는 상황에서도 소양극장은 춘천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통하였다. 춘천 도심 중심의 입지 조건과 최초의 최신식 극장이라는 명성답게 웬만큼 유명하다는 영화나 공연은 모두 상영할 정도로 소양극장은 춘천 문화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며 소양극장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극장의 이름도 '피카디리'로 바뀌었고, 원도심이 조금씩 쇠퇴함과 맞물려 극장을 찾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인근 명동에 대규모 현대식 극장이 들어섬에 따라 자연스레 피카디리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2007년, 피카디리 극장은 50년 넘는 세월을 보내고 폐관하게 된다.

50년 넘게 춘천의 문화중심지로 기능하던 피카디리 극장은 현재 10여 년째 그 시간을 멈추고 있다. 조운동 도시재생 선정 과정에서도 피카디리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과 제안들이 쏟아졌으나 많은 이해 관계가 엇갈리며 아쉽게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새명동 주민, 상인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새명동 거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어떻게든 새명동을 살리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최근 10여년 넘게 방치 되었던 피카디리 외벽에 디지털 벽화가 조성되었다. 오랜 세월 피카디리를 살리려 노력한 새명동 상인들의 노력이 드디어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21년 이후엔 중앙로 상상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며 새명동거리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피카디리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새명동 상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부디 헛되이 되지 않길, 과거 소양극장이 그랬듯이 앞으로 50년 이상 춘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명동이 되길 희망해 본다.

People · 사람

소양로 183 프로젝트
소근소근 마을 주민참여활동

글/사진 이범용 코디네이터

2020년 11월 2일부터 근화 20·21통, 소양 5통 주민들의 열망과 희망을 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소곤소곤 마을 주민 참여활동)'이란 프로젝트로, 단순히 사업량을 결정하고 용역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반적인 용역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께서 마을을 직접 바꾸고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2일(목) 타 지역의 경관 개선 사례를 찾아보고 워크숍을 통해 우리 마을과 어울리는 방안을 논의해 보았고, 11월 11일(수)부터 14일(토)까지 마을과 어울리는 색으로 담벼락을 도색하거나 어두운 골목에 벽부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등이야말로 요즘 같은 겨울에 안성맞춤인 아이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꽃인 지역 청년 작가들과 주민분의 협업을 통해 마을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꾸밀 수 있는 예술적 요소를 찾은 결과, 근화 20·21통, 소양 5통의 골목 특색인 집 앞의 화단을 인도에 접목하여 이어 보는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하여 활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곧 상황과 날씨가 나아지면 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각 시기별로 조금씩 씨앗을 파종하면 항상 꽃을 볼 수 있는 '소양로 183번길'을 조성하신다고 합니다. 때론 주민들께서 하시는 활동들이 투박하거나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마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그분들이십니다. 항상 꽃을 보거나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마을길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